



9면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활동 '시동'

전주매일

2020년 10월 13일 화요일 (음 8월 27일) 제263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라중, 송천동 에코시티로 이전 '급물살'

전북교육청, 여러차례 설명회 갖고 공감대 이끌어 학부모·학생·교직원 찬반투표로 이전여부 결정 현재 부지 교육행정서비스 복합공간 탈바꿈 계획

전라중학교의 송천동 에코시티로의 이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9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전라중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전 제안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도교육청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학생 학부모와의 이전 제안 설명회를 갖고 합리적인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이를 바탕으로 13~14일 이틀 간 전라중학교 이전·신설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오는 15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송천동 에코시티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덕진동에 있는 소규모 중학교인 전라중학교를 2024년 3월 송천동 에코시티로의 이전·신설을 추진한다.

전주 에코시티는 전주시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에 따라 공동주택 총 1만 3,353세대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총 1만 634세대까지 입주(분양)가 확정된 상태다.

올 3월 전주 에코시티 내 전주화정중학교(30학급 규모)가 개교했지만, 전주 에코시티 9월 현재 유입 중학생은 937명(34학급)으로, 2021년은 45학급, 2024년 61학급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당장 내년부터 많은 학생들이 원거리 중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에코시티 내 많은 중학생의 유입을 예상하고, 2018년부터 올 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제2중학교 설립 계획을 교육부 중앙부처심사에 제출했으나 학교설립시기 조정 사유로 재검토를 통보받은 바 있다.

지난 2014년부터 학생 수 감소와 소규모 학교 증가를 이유로 중앙부처심사를 강화해 학교 신설을 억제하고 있는 교육부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이뤄져도 학교 설립을 허락하지 않거나 소규모 학교의 폐교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도교육청은 2020년 3월 민성지구에 전주양현중을 전주 에코시티에 전주화정중과 전주자연초를 개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해당 학교 설립계획 승인 당시(2017년) 전주시내 소규모 중학교 2개, 초등학교 6개의 적정규모화(통폐합)를 조건부로 제시했고, 이에 도교육청은 2022년 12월까지 중학교 2개, 초등학교 6개를 통폐합해야 한다.

또한 학교 설립 권한을 가진 교육부는 전주 에코시티 유입학생의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와 인근 학교의 과대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제2중학교 설립 계획에 대해서도 전주시 학생수가 감소하고, 동일학군 내 여유교실 등이 있어 분산배치가 가능하므로 개발지역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 4학군 인근학교를 이전에 재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전주 에코시티 유입학생들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 동일 학교군내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소규모 중학교인 전라중학교를 전주 에코시티 개발지구로 이전·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라중학교는 1988년 개교 이후 1996년까지 학생수가 증가했으나, 현재는 학생 수 136명(6학급)의 소규모 중학교다. 또한 전라중학교가 송천동 에코시티로 이전할 경우 변화하고 있는 교육환경을 반영한 쾌적하고 안전한 최신식 교육환경이 제공될 것이다. 2024년 3월 이전하기 전까지 전라중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교육과정 운영, 학생자치활동, 학생복지에 대한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육성종목(야구부와 육상부)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이점이 결정되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전라중학교가 이전될 경우 인근 초등학교인 전주덕진초등학교와 전주금암초등학교 학생들은 전주덕진중(전라중 기준 651m), 전주덕일중(1.374m) 등 인근 중학교에 분산 배치할 예정이며, 해당 초등학교에도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



전주대사습 판소리 장원 김병혜씨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영예의 판소리명창부 장원은 김병혜 씨(만 51세, 전남 순천시)가 차지했다.

육환경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현재 전라중학교 자리에는 전주교육지원청과 전주시내 각 학교에 분산돼 있는 학생심리상담센터(Wee센터), 영재교육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각종 지원센터를 이사회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인포라(도서관 등)를 구축하는 등 교육행정서비스 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원도심 공동화를 우려하는 덕진동 주민들의 상실감을 채워주고, 지역경제 활동 활성화에도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시개발에 따라 신도심은 학생 출몰 현상이, 원도심은 학생 부족이 심각해 부득이 전라중학교의 이전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며 전라중학교 이해관계자들이 대응적 차원에서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전라중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이전·신설을 찬성할 경우 10월 중 자체투자심사를 거쳐 10월 31일까지 서류를 제출해 12월 중순경 전라중학교 이전·신설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정은성 기자

전북 예술대상 수상자 미선정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진)은 문화예술 창작과 진흥에 공로가 큰 예술가를 발굴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전라북도 예술대상'을 운영하고 있다.

전라북도 예술대상'은 도내 예술기관·단체의 장 또는 예술 관련 학과 개설대학의 총장(학과장)이 문화예술발전에 공로와 업적이 있는 예술인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심사는 서류 적격성, 지역기여도, 수월성, 경력·실적 등 총 4개 항목을 평가하며, 참석 심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최종 대상자가 결정된다.

지난 8월 24일부터 약 한 달간의 사업공고와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에 걸쳐 접수를 마감한 결과 8개 분야 총 11명이 접수됐다. 이에 재단은 '전라북도 예술대상 시상'에 관한 내부 규정'을 근거로 심사위원을 구성 지난 8일 엄중하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올해는 이렇게도 본 상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수상 대상자가 없으므로 결원을 내렸다. 개인적 창작 활동은 매우 우수하나 예술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도와 사회 참여도 측면을 고려해볼 때 올해 예술대상의 대상자로 선정하기에 다소 아깝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의견이다. /정은성 기자

전라감영 첫 전주대사습 대통령상 김병혜씨

70년 만에 복원된 전라감영에서 처음으로 열린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영예의 판소리명창부 장원은 김병혜 씨(51, 전남 순천시)가 차지했다. 김병혜 씨는 12일 열린 '제46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명창부 경연에서 판소리 심청가 중 심청이 물에 빠지는 대목을 열창해 장원으로 선정돼 대통령상과 함께 국악계 최고 상금인 5000만원을 받았다.

이번 '제46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및 제38회 전주대사습놀이 학생전국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예년과는 달리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약 1달간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열린 경연이 펼쳐졌다. 학생전국대회 예선전의 경우 비대면 온라인 심사로 실시됐으며, 일반전국대회 예선전은 소리문화관, 한

1달간 온·오프라인 경연 판소리 명창부 장원 영예

국전통문화재단, 전주향교, 전라감영 등 여러 장소에서 분산돼 무관객으로 진행됐다. 이날 전주MBC 생방송으로 생중계된 본선에서는 판소리명창부 김병혜 씨를 비롯해 각 부문별 장원자가 배출됐다. 부문별 장원자에게는 ▲국무총리상(농약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기악부, 무용부) ▲전라북도지사상(판소리일반부) ▲전주시장상(민요부, 판소리신인부, 고법신인부, 무용신인부, 민요신인부) ▲문화방송사장상(가야금명창부, 시조부)이 수여됐다.

국악계 명인·명창과 전주대사습놀이 역대 장원들이 개막 축하공연

으로 문을 연 이날 대회는 다채로운 기획공연이 장시간 펼쳐져 깊이 있는 축제의 장이 됐다.

특히 올해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는 지난 7일 전라감영 준공 기념식 이후 열린 첫 행사여서 눈길을 끈다.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의 모태가 조선 후기 전라감영 통인청과 전주부성 통인청에서 펼쳐졌던 판소리 경연이었기 때문이다.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무관객 속에 펼쳐진 올해 대회는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가진 전라감영에서 치러졌다는 점에서 기억에 남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주대사습놀이를 국악분야 최고 등용문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시민 행복시대를 열어나가는 선진의의회

정읍시의회
Jeongeup-si Council